

## 【 국내금융 뉴스 】

**무해약환급금 및 수수료 후취 상품 출시**

-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10% 가량 저렴한 순수보장성 보험이 출시되며, 보험료에 책정된 사업비를 계약 기간 내내 조금씩 나눠 떼거나 중도해약 시에 떼는 ‘수수료 후취’ 보험이 나오게 됨.
  - 무해약환급금 상품은 해약률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산출하는 대신 해약 시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정기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보장성 보험에 한해 허용함.
  - 판매수수료 후취 방식은 보험 가입초기에 설계사 수당이나 보험사 관리비 등을 떼는 방식에서 납입된 보험료를 자산운용 계정에 먼저 투입한 후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비를 차감하는 것으로 투자수익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무해약환급금 상품의 출시가 허용될 경우, 40세 남자가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인 20년 정기사망보험에 가입했다면 기존 1만 6,491만원의 보험료가 9.6% 줄어든 1만 4,904원으로 줄어들게 됨.
  - 단,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판매전 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유·무해약환급금 상품을 함께 권유토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강·정기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 위주로 무해약환급금 상품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 및 해지율에 민감한 저축성 및 종신보험에 도입한 사례는 없는 실정임.
  
- 아울러 기존의 보험료 산출 방식인 ‘3이원 방식’이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의 보험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상품 공시를 강화할 예정임.
  - ‘3이원 방식’은 사업비, 위험률, 이자율 등 3가지 기초율만을 평면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으나, ‘현금흐름방식’은 금리에측과 보증, 옵션 등의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가능해짐.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24)